

NAVER kakao

공공·통신·교육 사용자 확대 vs 특으로 간편 로그인·인증

포털은 올해도 청신호

1 네이버·카카오 사설인증시장 진출

네이버 9개월만에 사업처 54곳 확보 주택청약·국민연금 납부 등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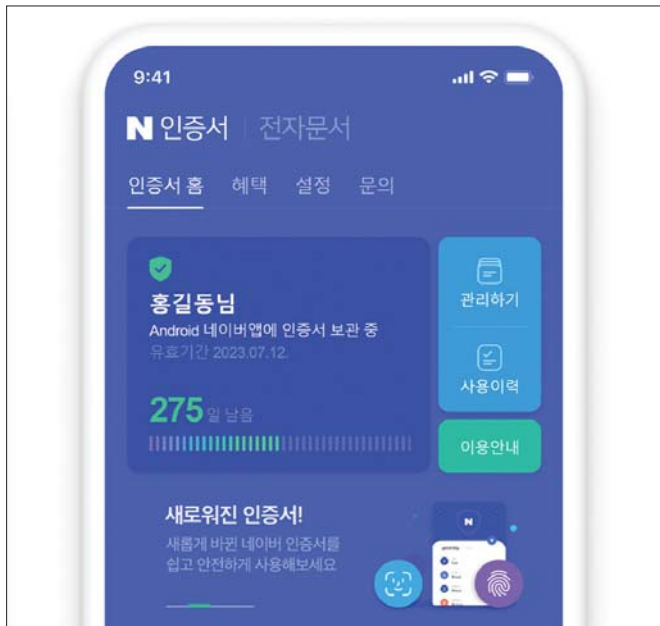
카카오 프로그램 없이 카톡 활용 행안부 전자서명 시범사업 선정

지난해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시대의 가속화 혜택을 받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업계는 이러한 흐름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는 2021년 공인인증서, 핀테크, 쇼핑, 웹툰, 구독경제 영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며 사업 다각화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5월에 걸쳐 주요 영역별로 각 회사의 특징과 경쟁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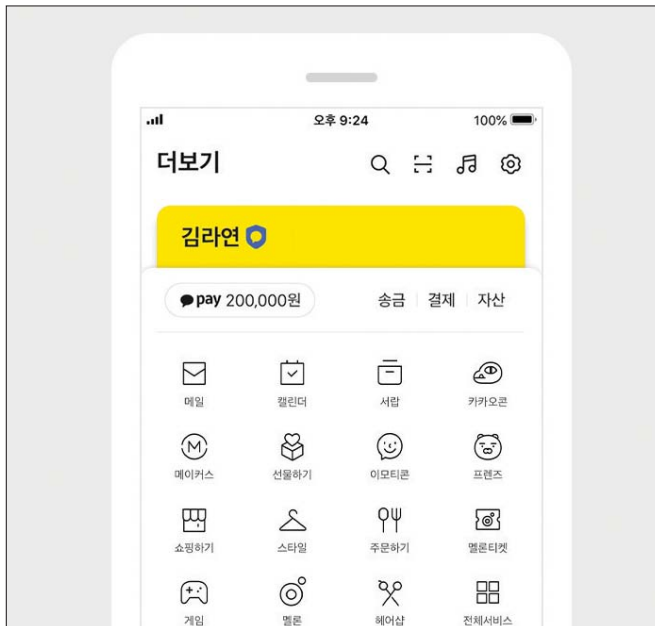
◆공인인증서 지고 사설인증서 뜬다

지난해 12월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고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설 인증 시장에 대한 경쟁 시대가 열렸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각자의 인증서를 통해 편리성과 보안성을 키우고 있다. 초기 단계인 만큼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3월부터 사설인증 사업을 본격 시작한 이후 공공, 금융, 통신 등 생활 분야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빠르게 사용자처를 넓혀가고 있



네이버 인증서 화면.



/네이버 카카오톡 지갑 이용화면.

/카카오

다. 네이버 인증서는 약 9개월 만에 54곳의 사업처를 확보했고, 발급 건수는 200만건을 돌파했다. 네이버는 민간 인증서 활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용자처와 발급 건수 모두 10배 이상의 폭발적 성장을 기록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택 청약과 국민연금 납부 내역 조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서비스 등을 네이버 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경희사이버대학교와 MOU를 체결해 올해부터 학생들은 모바일 학생증을 통해 시설 출입과 출석, 시험 응시 등의 상황에서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월부터는 SC제 일일은행과 신한금융투자에도 네이버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1분기 중에는 현대해상, MG손해보험 등 보험사들도 네이버 인증서를 도입할 예정으로 민간 영역에서의 확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가 2017년 6월 출시한 카카오페이 인증은 지난해 11월 누적발급 2000만건을 돌파했다. 가입자수는 1400만명이 넘고 200개 이상의 기관이 카카오페이 인증을 도입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PKI) 기반 구조로 설계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위·변조를 방지했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카카오톡만 있으면 간편한 인증이 필요할 때나 제휴기관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6자리 간편비밀번호나 지문·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는 지난달 신분증과 자격증, 증명서 등을 카카오톡에 보관해 관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지갑'을 출시했다. 카카오톡 지갑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활용처를 넓힐 수 있게 됐다. 이달 중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정부24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 등본발급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 이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인증서는 카카오페이 인증서, 패스, 삼성패스, KB모바일 인증서, NHN페이코 인증서 등 5곳이다.

◆간편한 사용성 강조

발급 과정의 복잡함과 액티브 엑스 등의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번거로움, 인증서 보관 및 갱신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공인인증서와 달리 네이버와 카카오의 인증서는 간편한 사용성과 보안성을 자랑한다.

네이버 인증서에서 '발급하기'를 누르고 약관 동의와 본인 확인을 거치면 즉시 발급된다. 발급한 인증서는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네이버 인증서는 공개키 기반 구조(PKI) 전자서명 기술과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등을 적용했으며 공공기관 심사와 자체 보안 감사로 보안성을 높였다.

카카오톡 지갑 역시 카카오톡 신규버전의 더보기 탭의 상단에 나오는 '안전하고 간편한 지갑을 만들어 보세요'를 누르고,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로 본인확인을 진행하면 곧바로 지갑이 생성된다.

카카오도 위·변조 및 부인방지를 위해 발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등 카카오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우위를 점한 사업자가 뚜렷하지 않고, 다양한 사설인증서가 나오고 있어 사용자처에 따라 다른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 적용되는 곳이 많아지면 이용자들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던 때보다 편리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국내 완성차업계, 내수판매 153만대... 18년만에 신기록

지난해 내수판매 전년동기비 4.8% ↑ 코로나 장기화에 수출한파는 여전

국내 자동차 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완성차는 물론 수입차 브랜드들도 내수 시장에서 판매 기록을 잇따라 갈아치우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계는 지난해 내수판매에서 18년만에 최대치를 기록, 153만3166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수치다. 업체별로 현대차가 2002년(79만4대) 이후 최다인 78만7854대를, 기아차는 역대 최다 기록인 55만2400대를 각각 판매하며 호조세를 보였다.

현대·기아차는 차종별 다양한 판매 기록도 세웠다. 현대차 그랜저는 1986년 1세대 출시 이후 역대 최다인 14만5463대가 판매되며 4년 연속 내수 1위·연간 10만대 판매 기록을 이어갔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대표 세단 G80이 5만6150대 팔리는 등 총 10만8384대가 판매돼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10만대를 돌파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친환경차 모델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는 2019년과 비교해 48.7% 증가한 6만6181대를 기록했다. 전기차는 18%, 수소전기차(넥쏘)는 38% 판매량이 올랐다. 올해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



현대차 더 뉴 그랜저



기아차 3세대 K5.

MP가 적용된 아이오닉 5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기차라인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아차의 세단 K 시리즈는 총 15만6866대가 판매돼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며 3년 연속 판매 신기록을 수립했다. K5는 8만4550대 팔리며 K 시리즈 실적을 견인했다. 쏠렌토(8만2275대) 역시 2002년 1세대 출시 이후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한국지엠은 레저용 차량(RV)인 트래버스와 상용차 콜로라도가 전년 대비 각각 379.2%, 291.7% 증가해 내수 판매 8만2954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8.5% 늘어났다.

르노삼성은 대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QM6와 소형 SUV XM3 등 SUV 라인업이 내수시장 상승세를 이끌며 전년 대비 10.5% 성장(9만5939대)했다.

쌍용차의 내수 판매는 8만7888대에 그치며 전년 대비 18.5% 감소했다. 다만 티볼리 에어와 올 뉴 렉스턴 등 신모델 출시로 하반기부터 판매가 재작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 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수출 한파'는 피하지 못했다. 국내외 판매도 감소했다. 지난해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완성차업계의 국내외 판매는 694만2794대(반조립제품 제외)에 그쳤다. 지난해 800만대선이 무너지고 1년만에 700만대가 무너지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역대 최다판매량을 기록한 수입차 브랜드의 성장세를 눈길을 끈다.

이날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가

27만4859대로 전년(24만4780대)보다 12.3% 증가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메르세데스-벤츠가 전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다만 판매량은 7만6879대로 전년에 비해 1.6% 감소했다.

2위를 차지한 BMW는 5만8393대 판매되며 전년 대비 32.1%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국내에 출시한 뉴 5시리즈가 판매 실적을 이끌었다. 3위인 아우디는 작년 한 해 총 2만5513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어 폴크스벤(1만7615대), 볼보(1만2798대) 쉐보레(1만2455대), 미니(1만1245대)가 모두 1만대 이상 판매됐다.

다만 일본 브랜드는 불매 운동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9% 감소했다. 렉서스는 27.2%, 토요타는 42.0%, 혼다는 65.1% 줄었다.

/양성윤 기자 ysw@

>> 1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서 계속

三電, 8세대 낸드양산 목전 하이닉스, 178단 낸드 개발

실제로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높은 경쟁력으로 슈퍼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말 M16을 가동하면서 생산량을 크게 늘릴 전망이다.

'초격차' 유지는 슈퍼사이클에서도 주요 전략으로 남아있다. 삼성전자는 4세대 10나노(1a) D램과 8세대 V낸드 양산을 목전에 두고 있다. SK하이닉스도 178단 낸드 양산 기술 개발을 끝마친 상태, 올해 말 1a D램 양산까지도 넘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올해 파운드리 시장이 전년보다 6%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TSMC와 초미세공정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팹리스 업체가 신제품 출시 러시에 돌입한 가운데, 인텔도 차세대 CPU를 파운드리에 수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점유율 싸움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재용 기자 juk@



SK하이닉스가 개발한 176단 4D 낸드 기반 512Gb TLC /SK하이닉스